

특 집

肝硬變症의 予防과 治療

간경변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오랫동안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동안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건되는 가운데 간이 섬유성 반흔과 간세포의 재생결절로 대체되어, 간이 울퉁불퉁해지고 단단해지며, 간의 정상적인 소엽 구조가 상실되기 때문에 혈관을 눌러 문맥고혈압과 간세포 자체의 기능장애로 인한 간부전 증세를 일으키는 종합적인 마지막 결과이다.

◇간경변의 원인◇

간경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간염과 알콜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몇가지 주요한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알콜 알콜의 과잉섭취와 간경화의 관계는 잘 알려져 왔는데 이는 동양보다는 서구 사회에 많은 원인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다. 술의 소비량과 알콜성 간경화의 유병률은 비례한다. 술의 종류나 술의 습관보다는 일일 소비량이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 40~82gr의 알콜을 매일 소비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간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자에서는 남자보다 소량으로 간경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알콜 자체가 간세포를 직접 상해할 가능성이 간장에서의 효소연구와 전자현미경에 의하여 명백해졌다. 그러나

알콜의 단독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원인들과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알콜 중독자들이 비타민이나 당백질이 적은 식사를 하며, 영양부족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볼때 알 수 있다. 또 이런 간경변증 환자는 단백질 많은 식사를 하게되면 병세가 호전되므로 영양실조와 알콜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간경변증에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2) 만성 활동성 간염 어떤 원인이든 만성 활동성 간염을 일으키는 질환은 간경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이 많다. 간경변인 환자의 혈액이나 간조직속에서 B형 간염과 직접 관련된 항원이 높은 빈도로 증명되고, 간염이 점차로 진행하여 간경변으로 이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모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높은 비율로 B형 간염 항원 보균자가 되고, 일부는 조기에 간경변으로 이행하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약이나 독성물질, 화학물질



金 富 成

(가톨릭대 내과교수)

고 있다. 속발성 담즙성 간경변은 수술 후의 담도협착이나 담석, 췌장이나 담관 또는 담낭에 생긴 암에 의해서 담관이 장기간 폐쇄되어 담즙이 울체되어 황달을 수반한 간경변을 일으킨다. 이 병형도 동양 사람에게 많고 젊거나 중년의 여성에게 많은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4) 헤모크로마토시스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질환으로 철분이 과잉 흡수되는 질환이다. 여자보다 남자에서 많고, 40대에서 50대에 발병한다. 과잉 흡수된 철분은 간세포에 침착해서, 간세포를 파괴시키고, 섬유화하여 간경변을 일으킨다. 또한 철분은 췌장, 피부 및 임파선 등에 침착하여 피부 색소 침착, 당뇨, 관절염 및 심부전 등을 일으킨다.

바이러스肝炎과 알콜이 가장 큰原因 식욕감퇴·全身권태감 등이主要증상

등도 발병 원인으로 의심을 받지만 실제로 중독성에 의한 발병은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담즙의 울체 담즙성 간경변은 원인 불명의 원발성 담즙의 울체와 담관의 폐쇄로 인해 이차적으로 오는 속발성 담즙성 간경변이 있다. 원발성인 경우 원인 불명으로 세담관에 염증이 있거나 파괴되어 담즙이 울체되어 일어나며, 이는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다. 이처럼 중년기의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병하는 것은 호르몬계통의 이상 혹은 항원항체의 면역 복합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

◆간경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肝炎과 알콜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사진은 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환이다. 여자보다 남자에서 많고, 40대에서 50대에 발병한다. 과잉 흡수된 철분은 간세포에 침착해서, 간세포를 파괴시키고, 섬유화하여 간경변을 일으킨다. 또한 철분은 췌장, 피부 및 임파선 등에 침착하여 피부 색소 침착, 당뇨, 관절염 및 심부전 등을 일으킨다.

(5) 심장성 간경변 심장 판막증이나 심낭염, 심근염 등에 의해 오랜동안 심한 심부전으로 인해 간에 울혈로 초래되는 간경변으로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이 병은 심장병을 10년 이상 앓은 사람에게 나타나며 간경변증 중에는 경과가 매우 긴 병이다.

(6) 윌슨씨 병 열성 상염색체성 유전을 하는 동대사 이상으로 동이 간, 뇌 및 기타 장기에 침착하여 오는 드문 대사성 질환이다.

(7) 기타 간경변의 종류와 원인은 그밖에 수없이 많고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간경변증도 많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인도 군도에서는 영양실조(극도의 단백질결핍)로 인하여 발생하는 크와시올콜이라는 병에서 간경변이 되는 것도 있고, 기생충의 일종인 일본주혈흡충증 및 기타 기생충증, 매독성, 약물에 의한 중독성 등이 있다. 원인에 따라 간경변을 일으키는 병들은 다음과 같다(표 1).

◇간경변의 일반 증상◇

간경변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나타내지 않거나 일부 약한 간세포 기능부전의 증세를 보이

기도 한다. 이는 간장이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예비력도 많고 또 재생능력도 왕성하여 일부가 장해를 받아도 나머지 정상적인 간세포에 의하여 간 기능이 대 상된다. 이 시기에는 식욕감퇴, 건신 권태감, 피로감, 구역과 구토 및 위상복부동통 등 비특이적인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을 지나 간경화가 진행되면 비대상기의 말기적인 증세가 나타나는데, 크게 문맥압 항진증에 의한 합병증과 간세포 기능 부전에 의한 합병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표 2).

(1) 문맥압 항진 문맥압 혈관은 장관과 비장 등에서 오는 상, 하 장간막혈관 및 비장정맥이 모여 간을 통과하여 간정맥으로 나가는 혈관계로 정상 간에서는 문맥압은 대정맥압보다 5mmHg이상 높지 않지만, 간경변에서 증식된 섬유성 반흔과 재생성 결절에 의해 정상구조가 파괴되면서 혈관이 압박을 받아 문맥압이 현저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에 문맥압과 전신 혈관계에 부혈로가 발달되어 식도 및 위정맥류, 매두사의 머리 등이 유발되며, 비장 비대 및 복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2) 소화관 출혈 문맥압 항진으로 인해 식도,

原因

증상

함께 소변량의 감소와 신부전 증세를 동반하는 간신증후군이 말기에 나타나는데 대개는 사망하게 된다.

◇간경변의 원인별 증상◇

(1) 알콜성 간경화증 여성보다는 남성에 많고, 50대에 호발하며, 알콜과음 경력이 5년에서 15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간경변증 중에서 긴 경과를 밟는 병형이다.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 즉, 식약감,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으로 나타나며 황달이나 복수가 생겨서 비로소 발병 사실을 깨닫는 수가 많다. 피부 표면에 적은 홍색의 거미모양 혈관종이 특히 목 부분과 가슴 윗부분 그리고 팔 윗부분등 상반신에 나타나며 남자의 경우 여성형 유방과 고환이 위축되기

위에 부혈로가 형성되어 소화관 출혈의 원인이 된다. 토혈과 혈변이 주증상이 되며, 저절로 멎는 수도 있으나, 대량 출혈로 간경변에 의한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된다. 또한 간성 혼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3) 복수 간경변이 진행되면 문맥압 항진, 혈청 알부민 감소 및 염분 저류 등으로 복수가 고이게 된다. 초기에는 무증상의 시기가 오래가면서 자각적으로 증세가 없는데, 배가 점차로 나오고 복부 팽만감과 소화관 증세와 늑막액 저류 및 복막염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비특발성 복막염의 경우 복수가 있는 환자가 복통과 압박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간성 혼수로 이행되기도 하고 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4) 간성 혼수 간성 혼수란 말기 간질환 환자에서 오는 여러가지 정신 신경학적 증세를 말하며 간기능의 저하 및 안정제 복용, 이노제의 남용, 위장관 출혈, 단백질의 증가, 감염 등의 촉발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나타난다. 의식과 인격 장애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는데, 초기에는 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잠이 많고, 말수가 적어지며 자신이 있는 현재의 장소나 병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든지, 변소가 있는 곳을 잊거나 허리를 매시 않은채 걸어다니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불안 초조해하며 흥분하기 쉬워지고 큰 소리를 내거나, 정신착란상태가 되면서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5) 간신증후군 간경변 환자에서 심한 복수와 함께 소변량의 감소와 신부전 증세를 동반하는 간신증후군이 말기에 나타나는데 대개는 사망하게 된다.

도 한다. 손바닥에 수장홍반이 동반되고, 비장이 커지는 간경변의 증세가 나타나며 피부에 자반이 생기며, 이하선이 붓고 털이 빠지는 비특이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간경변증에서는 오한이나 고열은 없으나 미열은 흔히 있다. 술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마시게 되면 급성간장해를 일으켜서 구역과 구토와 함께 황달과 복수가 생기며 혼수에 빠지는데 이는 위험한 상태로 혼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간경변증이 지속되면 복수가 심해지고 정맥류, 간성 혼수 등 말기적 증상을 일으킨다.

(2) 괴사후성 간경변증 알콜성 간경변증과 같이 증상이 거의 없으며 젊은 사람에서도 생길 수 있다.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황달이 오래갈 수 있다. 그 밖의 증상은 알콜성 간경변증과 비슷하다.

(3) 담즙성 간경변증 초기 증상은 가려움증이며 황달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담즙장애증상이 주증상이다. 병세가 진행하면서 기타 간경변의 비대상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예후는 불량하다.

(4) 기타 헤모크로마토시스에서는 초기에는 당뇨병 증상과 같은 피부 색소 침착을 보이며 복통, 호흡 곤란, 부종, 복수, 말초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신적인 질환으로 같은 대부분 커져있다. 심장성 간경변증에서는 심부전이 오래된 환자에서 단단하고 커진 간이 촉진되며 복수가 생기게 된다. 또한 악액질현상과 순환 장애현상이 많이 나타

〈표 2〉

Table with 2 columns: 간세포 기능부전, 문맥압 항진증. Rows include 황달, 거미모양의 혈관종, 손바닥의 붉은 점, 여성형 유방, 고환위축, 체모소실, 근위축 및 부종, 자반증, 간성혼수.

표 2 : 간경변증의 여러가지 원인

